

국제유가 하락…주유소 기름값도 내린다

지난주 국제 휘발유 가격 배럴당 4.49달러 ↓

SK, ℓ 당 50원씩 ↓ …국내 정유사 동참할듯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카드 기관 하던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가격도 오랫만에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4일 정점을 찍은 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주부터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7월 둘째주와 셋째주 사이에 국제 휘발유가격은 배럴당 142.09달러에서

137.39달러로 4.49달러(3.4%), 국제 경유가격은 배럴당 173.65달러에서 169.77달러로 3.88달러(2.2%)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에서는 21일부터 지난주보다 ℓ 당 약 50원 가량 인하한 가격으로 대리점과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GS칼텍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는 21일에 대리점과 주유

소에 ℓ 당 휘발유는 1천802원, 경유는 1천793원에 공급했다.

이는 지난 10일에 비해 ℓ 당 휘발유는 88원, 경유는 94원 인하한 가격에 공급한 것이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다음주에도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16일 ℓ 당 각각 1

천950원과 1천947.75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1일 현재 ℓ 당 각각 1천943.12원과 1천938.79원을 나타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8월초에는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가격이 ℓ 당 1천900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다음주에도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도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만큼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얼굴크기만한 완도산 전복

22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선보인 사람 얼굴크기의 완도산 전복, 전복은 크기가 클수록 상품(上品)으로 치며, 큰 전복이 보신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선보인 전복은 무게 1kg으로 10년 이상 된 자연산 전복이다. 가격은 27만원 선이다.

“철강·유류·식료품값 가격 담합 집중 감시”

공정위 부위원장,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은 22일 철강과 유류 가격, 학원비, 식료품 가격 등의 담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국내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만연해 있다”며 “이럴 때는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과 석유제품의 가격, 학원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식료품의 일부는 조사를 벌이면서 가격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자적

“관련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사전 예측, 선제 대응해달라”

김동수 재정부 차관

김동수 차관은 “정부 차관들이 관련 품목의 가격 수급 동향을 사전 예측해 선제 대응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김동수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과천정부청사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회의를 위한 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이상 하락하고 밀 가격이 4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다행스러운 징후가 보이고 있지만 유제품 가격 등이 인상되고 있어 물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경제 주체의 이익을 꼼꼼하게 비교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망하는 물가 수준을 달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각 부처의 물가 전단 점검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수 있게 됐으며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차관회의는 그동안 관계부처 1급 회의로 운영되던 서민생활안정 테스크포스(T/F)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회의로 이번이 2번째다.

/연합뉴스

펀드 대출자 ‘나어떡해’

이자 치솟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작년 11월 ‘탑스펀드담보대출’을 선보여 이달 16일까지 1천8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 상품은 주식 펀드를 따라 평가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해주는 특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담보대출을 받아 다시 펀드에 투자하기도 했다.

최근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자 일부 은행들은 대출비율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1월 ‘펀드 파워론’을 선보여 최근까지 573억원의 대

출 실적을 올렸다.

국민은행의 펀드담보대출 잔액도 작년 말 1천616억원에서 6월말 현재 2천266억원으로 650억원 가량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담보대출은 보통 1년 만기인데, 최근 펀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면서 ‘이중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 전했다.

은행들도 펀드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가금액의 50%, 채권형은 80%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해외펀드의 경우 이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C은행은 기존에 채권형 펀드는 80%, 주식형 펀드는 50%로 일괄적으로 펀드 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했으나 지난달부터 펀드별 특성에 따라 대출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90% 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일부 펀드는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銀 예금금리 0.2%P 인상

하나은행은 22일 정기예금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인 고단위 플러스 정기예금과 100만원 이상인 부자되는 정기예금은 1년 이상 금리가 5.7%에서 5.9%로 각각 0.2%포인트 인상되고 500만원 이상 하나예수예금은 1년 금리가 5.3~6.1%에서 5.5~6.3%로 역시 0.

2%포인트 오른다.

이는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체 금리가 지난 6월20일 5.91%에서 7월18일 6.51%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당장 예금금리 인상에 동참할 계획은 없으며 다음달 금융회원회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범죄 66.7%

“코스닥 시장”

을 상반기에 적발된 주가조작 범죄의 66.7%가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접수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05건으로 작년 동기의 129건에 비해 24건(18.6%) 줄었다.

이 중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로 처리한 사건은 88건으로 작년 동기와 동일했다. 불공정행위가 위축 치밀하게 이뤄진 탓에 적발건수는 감소했으나 혐의의 중대성은 과거에 비해 더 커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유형별 불공정행위를 보면 주가조작(21건)과 미공개정보이용(27건) 사건이 48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으며 대량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을 포함한 기타 사건은 32건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는 14건으로 전체의 66.7%에 달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C프로젝트	LG텔레콤 신경관리 및 전선인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3	062-444-2233
프리미어에이치알(주)	SK텔레콤 상담원 광주역/우산동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24	062-383-1756
㈜금강건설	현장(공사/공무/안전)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225-1800
아리솔	현장 행사 홍보 영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6	1544-2517
유한회사 태호	문서작성, 관리, 경리 관리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26	062-974-4999
신화파스칼(주)	설계, 생산관리, 자재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9	062-961-0583
(주)코센	회계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62-602-7765
미래에셋생명·본사	[남/여]승인률/월평균300만/변액, 펀드전문상담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7/31	02-3425-0477
남영건설(주)	2008년 남영건설(주) 신입/경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360-0781
(주)별해	의료기기 AS엔지니어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655-5081
KJ일본어전문학원	일본어교원 강사	대졸/경력무관	1000~1200	07/31	062-228-5400
거동건설(주)	토목현장경력사원(4년)	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07/31	062-364-0900
(주)남성테크	지동차시트조립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381-0360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韓銀, 10만원권 대동여지도에 독도 표기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발행되는 10만원권의 보조도 안인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일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동여지도가 표기하지 않아 10만원 보조도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근 한은 발권국장은 이와 관련, “대동여지도 목판분에는 독도가 없으나 그 전의 필사본에는 이 섬이 표기돼 있다”면서 “한은은 필사본에 따라 독도가 들어가는 대동여지도를 보조도안으로 사용한다고 작년 말에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작년 12월에 고액권 보조도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당시 이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필사본에 근거해 독도를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는 22일 서울 신촌 거리에서 여성용 허리케인 아이스크림 '풀레이디'를 선보였다. 롤레이디는 미백아 대두발효 추출물, 허거나무 추출분말, 타우린, 아스파라긴과 쿠라겐,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피부와 몸을 깨우는 아이스크림이다.

/연합뉴스